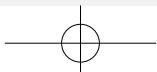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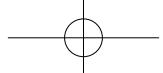
발간사

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. 여기저기서 인문학 관련 행사가 열리고 관련된 책도 쏟아져 나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?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,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자면, 현실의 삶이 꽉꽉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통해 삶의 지혜나 문제해결의 실마리 또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.

아무튼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. 그러나 그런 배경에서 우리 선현(先賢)들이 남긴 유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, 또 한편 그 문화적 자산을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발굴하여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. 더구나 그런 문화적 자산을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더욱 안 되고, 일반사람들도 읽고 각자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밀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이런 취지에서 조선 중기 율곡(栗谷) 이이(李珥) 선생의 글을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다시 옮기고 풀어 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.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각 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, 사회의 여러





분야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할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비록 시대는 달라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화란(禍亂)이 닥칠 것이라는 선생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.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번성하려면 악습과 폐단을 개혁해야 함을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.

본 사업단에서는 이런 뜻에서 선생의 개혁사상이 담긴 「만언봉사(萬言封事)」를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을 덧붙였습니다.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오늘날에도 시사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은 본 사업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편찬 하였고, 대학생 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.

아무쪼록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폐단을 개혁하고 국가가 번성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.

2016. 10.

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·국제적 확산 사업단장
최영진